



→ 인사말

경제학부 소식/지

- 인사말
- 경제학부소식
- 교수기고
- 동문기고
- 동창기업인 인터뷰



학부에서 드리는 말씀

이지순(경제학부 교수)

친애하는 경제학부(경제학과, 무역학과 = 국제경제학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 속에 경제학부는 예나 마찬가지로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들을 모아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 뉴스레터를 받으신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지금까지 모교의 경제학부가 무엇인가 달라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학부는 현재 환골탈태의 변신을 도모하기 위해 암중모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경제학부가 처한 대내외 환경이 예전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인접학문분야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철저한 변신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에 걸쳐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부는 근래에 들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N세대 학생들은 재미없고 어렵다며 경제학보다는 법학이나 경영학에 더 관심을 보이고, 사회에서는 우리 졸업생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 연구의 내용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수님들은 그대로 절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좌절이 얼마나 큰가는 이미 부임했던 두 명의 교수들이 한 학기만에 미국으로 떠나가고 부임예정이던 분마저 오지 않기로 한 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훌륭한 선생님 모두가 학교를 떠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의 일차적 책임이 학교에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제학부 교수 일동은 학생들과 사회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도록 경제학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지지 않는 훌륭한 경제학도를 배출해온 지금까지의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교수들의 연구능력을 더욱 확충하여 사회과학의 꽃인 경제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을 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최고의 두뇌육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경제학박사 배출에 있어 많은 부분을 외국에 의존해왔으나 앞으로는 경제학부가 배출하는 경제학박사가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생들과 사회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도록 경제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더 실질적인 것으로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학부과정을 '일반경제학' '기업경제학' '국제경제학' '법률경제학' 등의 분과로 나누어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일차 사업으로 2001학년도부터 학부 신입생 216명중 50명 정도를 선발하여 종래의 경제학부 필수과목에 더해 managerial economics, financial economics, accounting economics, industrial economics, stock market analysis 등의 지정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기업경제학' 분과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다 더 경제현실에 근접한 과목의 개설을 바라는 학생들과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가 깊은 졸업생배출을 바라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이러한 학부과정 개편작업과 아울러 이제까지 학자양성에만 치중하였던 대학원과정에 실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급경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수요원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 바 장기적으로는 경제학부 전임교수의 증원을 도모하는 한편 우선은 연구소나 기업체 그리고 관계나 언론계에서 다수의 전문인력을 초빙교수 또는 겸임교수로 모시어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수의 기금교수 자리를 신설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어 연구와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일과 아울러 후학들의 존경을 받는 경제학자 여러분을 석좌교수로 모시어 학문의 계속성과 역사성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대학원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학부의 대학원교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연구공간이나 연구비지원 등에 있어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유능한 학생들을 잡아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이 너무나 부족하고 적으며 일곱 평 남짓한 방에 열 명의 학생들이 북적댈 정도로 연구공간이 협소합니다. 세계수준의 학자양성과 더불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전문가양성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경제학부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정에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경제학부의 교수와 학생 일동은 열악한 환경을 탓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맹활약 중이신 동문여러분이 이제껏 이루어온 경제학부의 찬란한 전통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을 따듯한 애정으로 보아주시고 힘자라는 대로 모교 경제학부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경제학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저희가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시고 못하는 것은 엄히 꾸짖어주십시오. 더 나은 경제학부를 만드는데 진력하겠습니다.

▲ UP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지난해 바로가기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m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경제학부 소식/지

- 인사말
- 경제학부소식
- 교수기고
- 동문기고
- 동창기업인 인터뷰

교수동정

1. 인사

김신형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1999. 11. 2 - 11. 1
박우희	포항제철(주) 사외이사	2000. 3월말
홍원탁	국제지역원 소천교육연구재단 이사위촉	(2년)
정운찬	기획위원회 위원위촉	2000. 5. 10 - 5. 9
이지순	대학원 이문경제학 전공주임 겸무	2000. 2. 17 - 2. 16
	사회대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2000. 4. 10 - 4. 9
정영일	연구교수 승인	2000. 9. - 2001. 2.
정운찬	기획위원회 위원위촉	2000. 5. 10.- 5. 9
홍원탁	국제지역원 소천교육연구재단 이사위촉	(2년)
이근	국제지역원 운영위원회 위원위촉	2000. 3. 13- 2002. 3. 12
	대학원 협동과정 지역연구 전공주임 겸무	2000. 3. 15- 2002. 3. 14
김선구	임용유예 승인	2000. 8. 31까지 (6개월)
최연구	임용포기	2000. 2. 18.
최재필	퇴직	2000. 1. 10.

2. 외국방문

김세원	미국	세미나 참석	2000. 1. 5- 1. 12
	프랑스	심포지엄 참석	2000. 3. 15- 3. 18
안병직	일본	워크샵 참석	2000. 1. 6- 1.14.
	일본	강연	2000. 2. 18- 2. 25
이승훈	미국	연구자료수집	2000. 1. 20- 1. 25
정영일	일본	세미나참석	1999. 10. 23- 10. 29
	일본	논문발표	2000. 2. 17- 12. 21
	일본	심포지엄 참석	2000. 2. 29- 3. 5
정운찬	영국	자료수집	2000. 1. 3- 2. 4
표학길	방글라데시	학술회의 참석	1999.10. 28- 11. 2
	미국	학술회의 참석	1999. 11. 6- 11.14
	일본	학술회의 참석	1999. 11. 25- 11.27
	미국 일본	학술연구	2000. 2. 1- 2. 28

홍기현	일본	학회참석	1999. 12. 17-12. 21
홍원탁	미국	가사	2000. 1. 8- 1. 16.
이근	중국	연구자료수집	2000. 1. 5- 1. 16
	미국	논문발표	2000. 2. 18- 2. 22
	홍콩	학술회의 참석	1999. 11. 3- 11. 6
	일본	워크샵참석	1999. 11. 15- 11. 17

## 학부행사

### 1. 교무

- 1) 2000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정시모집
  - ▣총 562명 지원, 196명 합격.
- 2) 2000학년도 대학원 정시모집
  - ▣석사과정 총 62명 지원, 18명 합격
  - ▣박사과정 총 7명 지원, 2명 합격
- 3) 200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일시 : 2000. 2. 26.(토) 오후 2시 체육관
  - ▣학사 : 183명
  - ▣석사 : 13명
  - ▣박사 : 5명  
(정기화, 박이택, 이건범, 박종한, 김봉주)
  - ▣졸업포상 : 최우등 6명, 우등 37명
- 4) 2000학년도 입학식
  - ▣일시 : 2000. 3. 2.(목) 11시 체육관
  - ▣학사 : 222명
  - ▣석사 : 48명
  - ▣박사 : 9명

### 2. 학생

- 1) 상대동창회 상대동창회장상 및 우수논문상 수여
  - ▣상대동창회장상 : 이현태
  - ▣우수논문상 : 서기철
- 2) 2000학년도 경제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00. 3. 3.(금) 오전 11시, 박물관 강당
- 3) 200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00. 3. 2.(목) 오전 10:30, 16동 M110호
- 4) 2000년도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박사과정 장학생 선발
  - ▣선발장학생: 우석진(Wisconsin대 유학예정)  
홍승현(Stanford대 유학예정)

### 3. 행사

- 1) 2000학년도 제6회 동문초청강연회
  - ▣일시: 2000. 5. 9.(화) 오후 4시
  - ▣장소: 박물관 대강당
  - ▣연사: 김근태(새천년민주당 부총재)
  - ▣내용: "21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2) 2000학년도 경제학부 산업시찰
  - ▣일시: 2000. 5. 19.~ 5. 20.
  - ▣장소: 두산그룹  
(OB맥주 이천공장, 강릉 소주공장)

—

—



→ 교수기고

경제학부 소식/지

- 인사말
- 경제학부소식
- 교수기고
- 동문기고
- 동창기업인 인터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

류근관(경제학부 부교수)

요즘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섬의 법칙이 생각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대체 무슨 말인가? 경제 사학자는 예를 들어 답한다. 역사적으로 기계는 노동자를 일터에서 몰아냈다. 양모산업의 발달에 따라 양은 사람을 초원에서 몰아냈다.

내가 드는 예는 조금 천박하다. 도박판을 생각하자. 시중에는 현금인 양화와 함께 칩이라 불리는 악화가 함께 유통된다. 칩은 현금과 교환가능하다. 애당초 칩에 상응하는 만큼의 현금을 물주의 방석 밑에 묻어 두었기 때문이다.

칩이 종반을 향해 치달을 즈음 칩과 현금의 교환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 유통되는 칩의 양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물주가 과연 약속대로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줄지도 걱정된다. 나아가 칩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가 파장 후 일시에 환전하게 되면 치부한 사람으로 몰린다. 개평을 뜯길 가능성이 크다. 딸 때마다 꼬박꼬박 현금을 챙겨 거금을 따고서도 시침 똑 떼고 있는 양체를 대신하여 빈민구제사업의 부담을 혼자 떠 앉아야 한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 일찌감치 칩은 남에게 주어 시중에 유통시키고 현금 은 손아귀에 틀켜 주자. 이리하여 양화인 현금은 유통과정으로부터 사라진다. 악화인 칩만이 판을 치게 된다. 그래섬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악화가 양화에 의해 밀려나는 모습은 도처에서 목격된다. 예의를 지키는 양반과 무례한 상놈이 인터넷에서 만나면 양반이 자리를 뜨고 상놈이 판을 설치게 된다. 좋은 정보는 잘 숨겨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활용하고, 시련 같은 것이면 남에게 주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다. 저질 정보가 난무하게 된다.

요부는 조강지처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청춘을 바친 여인이 어찌 처장에만 전념한 색시의 교태를 따라갈 수 있으랴. 학구적인 교수보다는 정치적인 교수가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그 프리미엄도 누린다. 물론 모든 정치적 행위가 악은 아니다. 교수의 중심이 정치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캐나다의 유능한 의사들이 돈을 찾아 고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남하한다. 미국에서 돈벌기가 좋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국내은행보다 외국계 은행을 선호한다. 능력이 있는 경우 인정도 받고 돈도 벌기 때문이다. 누가 애국심의 이름으로 이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까.

같이 잘살자는 사회주의의 이념은 생존경쟁에서 참패를 당해 죽어가고 있다. 북유럽 나라들의 평등지향적 사회, 경제체제는 미국식의 냉엄한 그것과 맞부딪쳐 본래 모습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다. 미풍양속도 지키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도 하는 '평등고 알먹기' 식의 방안은 없어 보인다.

중든 싫든, 행이든 불행이든, 흥부야 기가 막히든 말든 사업이 번창하는 쪽은 놀부다. 잘해보자고, 잘하면 된다고 번번이 외쳐 보았자 잘되지 않듯, 도로건설 없이 시민의 도덕에 호소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듯, 현실과 괴리된 도덕과 이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평등을 외치던 동구권의 지도자들은 시대가 변한 지금 스스로의 변신에 불평등하게 앞서 있다. 중국 반한 직후 홍콩의 아파트 값은 많은 사람의 예측과 달리 왜 뛰었는지 생각해 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자금도 피쳐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를 선창하던 사람들이 독재의 옹호에도 능력을 발휘한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아왔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던 정부관리가 독과점업체에 스카우트되어 단속의 예봉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나, 편집사가 관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개업하여 이른바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나 도덕의 무력함을 알려주는 마참가지다.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 도덕이 설 자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지 무턱대고 잘해보자고 강변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일본은 없다고 쓰면 일본은 그만 없어지는가, 양심을 갖추라고 떠들면 그걸로 몸속 가득 찬 이기심이 사라지는가. 착각은 악몽처럼 일찍 깰수록 좋다. 선악의 선택은 어차피 각자의 몫이다.

▲ UP



→ 동문기고

경제학부 소식/지

- 인사말
- 경제학부소식
- 교수기고
- 동문기고
- 동창기업인 인터뷰



21世紀 人材像  
-同門 後學에게 거는 期待-  
金 弘 基  
삼성 SDS (주) 大表理事

분단 50년만에 역사적인 南北頂上會談이 열렸다.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만난 두 정상은 50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 넘으려는 듯,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일싸 안았다. 참으로 감격적인 모습이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의 앞날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돌이켜 보면 지난 半世紀 동안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經濟成長을 이루어 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 낸 것이니 자랑스럽고 고마울 따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상대 동문들의 활약을 보면 민족의 앞날을 밝히기 위해 각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했음을 깨닫게 된다. 同門의 일원으로서 뜨거운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한줄기 검은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 바로 남북으로 갈라진 현실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반세기만에 거둬질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오랜 시간 忍辱의 세월을 견뎌 낸 우리 민족의 앞날에 曙光을 비추고 있다. 다행스럽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대하면서 평범하지만 영원한 진리를 새삼 깨닫는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날이 오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는가?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근본 動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다. 前者가 사회변화의 원인을 묻는 질문이라면 後者는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인재상을 묻는 질문이라고 하겠다.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가 어느 하나로부터 起因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사회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중의 하나가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이었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30여년 전 군사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되었다가 일반인에게 퍼지면서 폭발적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인터넷은 下部構造의 변화를 통한 上部構造의 변화에 더 없이 큰 起爆濟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자유정신을 토대로 한 인터넷의 발전은 정보력을 독점하여 권력을 구사하던 기존 조직을 無力化시키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는 閉鎖社會에서 開放社會로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남북회담에서 보여 준 북한의 前向的 자세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아직 사회적,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다소 개방의 시기가 늦어지는 감은 있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고 일컬어져 온 북한을 개방과 화해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그 날이 오면 우리 민족은 半萬年 동안 움크리며 참아 왔던 엑스트라의 역할에서 벗어나 당당히 세계 무대의 主役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리라 믿는다.

그런 날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변화무쌍한 歷史의 激浪을 헤쳐 나가기 위한 인재들은 누구인가?

안정의 基調 속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인재라는 소리를 듣기가 비교적 쉬웠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과서를 잘 외어서 어느 정도의 기초실력을 보유하면 되었고,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고 윗사람의 지시에 순응하면 되었다. 한 마디로 창의력이나 결단력 보다는 誠實性과 忠誠心이 德目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 컴퓨터, 정보통신,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한 정보화 사회는 社會基盤의 중심 축을 정보와 지식 쪽으로 옮겨 놓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 속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하게 되었으며 국경, 사업방식, 업종, 남녀의 역할 등 모든 면에서 경계가 붕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심화되어 승자독점의 시대(winner takes all)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전통적인 성실성과 로열티 보다는 정보력 강화, 효율적 시간관리, 정보기술 활용의 생활화, 창의력, 스피드 경쟁력, 핵심역량 개발, 파트너쉽(partnership) 구축, 相生의 精神 등이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그러한 덕목을 갖춘 인재를 21세기형 인재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한 마디로 창조성과 전문성 및 밝고 긍정적인 심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로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양을 갖추고 있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여야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어야 21세기형 인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같은 21세기형 인재를 우선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 확고한 꿈을 세우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해 일의 本質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밝고 긍정적인 심성을 지닌 인재가 되기 위해 남을 배려하는 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리라고 본다.

50년 분단의 세월을 뛰어 넘어 화합과 번영의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의 전기가 마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동문 후학들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그대들도 느낄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 만주벌판을 달리던 선조들의 壯快함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두 동강난 반도로 찢그러들어 있는 안타까움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받아 오르는 통한의 심정을. 한 시인은 노래하였다. "누가 祖國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바라보게 하라"고. 사랑하는 동문후학들이 이 애절한 救命意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21세기형 인재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바이다.

▲ UP





→ 동창기업인 인터뷰

경제학부 소/식/지

- 인사말
- 경제학부소식
- 교수기고
- 동문기고
- 동창기업인 인터뷰



고시같은 건 안했으면 좋겠어요

임병동 인젠(주)사장

한 해 2백여명 씩 경제학부로 모여드는 신입생들은 몇 년 뒤 졸업하게 될 자신의 장래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행정고시 합격으로 출세를? 은행에서 한국금융계를 누벼보거나,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교수나 연구원을 꿈꾸는 사람도 많으리라. 그런데 경제학부 출신이 벤처기업 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흔히 공대생들만이 우글거린다고 알고있는 테헤란로의 벤처정글에 경제학부 출신이 우뚝 서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86학번 임병동씨(34). 그는 현재 창사 2년만에 매출액 100억을 내다보는 컴퓨터 보안업체 (주) 인젠(INZEN)의 사장이다.

기자가 역삼역 근처에 있는 「인젠」을 방문했을 때, 그는 업무 상담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기자와의 인터뷰 중간중간에도 핸드폰 전화를 받느라 몇 번 대화가 끊겼다. "그쪽에서 우리 요구에 대해 뭐래?...?"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가 난무한다. 깔끔한 외모에 '사장'이라고는 언뜻 느껴지지 않는 젊은 총각의 모습이 전형적인 '벤처맨'이었다.

"인젠은 'Internet Zen' 의 약자예요. 'Zen'은 '선(禪)'이라는 한자가 중국발음으로 서양에 전해진 것인데, 흔히 '경지에 이른 사람', '최고수'라는 의미도 가지죠."

인터넷의 도사. 「인젠」에는 '해커', '크래커' 등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컴퓨터 천재들이 모여있다. 특히 97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 학생들 사이에 벌어졌던 '해킹전쟁' 와중에 구축됐던 노모스(24) 등 해킹동아리 KUS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은 해킹에 대해서라면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에 드는 컴퓨터 귀신들이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산업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졸업해보니 IMF가 막 터졌더군요. '이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진 않겠지'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해킹 방지 분야가 끌리더라고요. 아직 인터넷 보안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우리간에 큰 기술격차가 없거든요. 해킹은 우리가 국제경쟁력이 있습니다."

인젠은 작년엔 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미래에셋」에서 10%지분으로 180억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기업가치를 1,800억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98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기업가치가 3,600배가 뛰어오른 것. 은행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산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NeoWatcher' 등이 「인젠」의 대표 상품.

그에게 한번 과거 경제학부 시절을 물어보았다. 격동의 80년대를 살았던 그에게 대학생살은 무엇이었을까.

"요즘 운동권 출신들이 벤처에 뛰어드는 일이 회자된 적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니구요. 남들 하는 만큼 시위에 참여하는 정도였죠. 관심도 있었고 Marx 경제학도 읽고 그랬는데, 깊이 빠지지는 못했죠. 수업은 대체로 빠지지 않고 출석했어요. 하지만 3학년때까지 정상적으로 기말고사를 쳐 본 적이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도 몇몇 죽어나가던 때라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생각나는 게, 한상진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가 그 해 기말고사 거부 결의가 있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낙제를 받게 되었거든요. 학사경고 2번이면 제적당할 때였는데... 우리가 한상진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했는데 교수님도 참 난감해 하시고... 결국 D로 해결되었지요."

그 당시 교수님들과의 기억에 대해서 더 물어보았다.

"정기준 교수님은 대단히 열성적이었던 분으로 기억되요. 수업시간이 끝나도 계속 수업을 강행하시고..... 정운영 교수(현 경기대교수)님이 청바지를 입고 강의하시던 것도 인상깊죠. 우리는 그 분과 수업시간 내내 학생들과 사회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곤 했었어요. 양동휴 교수님은 수학여행 때 같이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술을 잘 드시더군요. '저와 같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한 유일한 분이예요."

임 사장은 본인이 술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듯 하다.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 '대학시절 술을 많이 마셨고, 그때 사귄 술친구들이 지금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의 인물평이 보인다. 평범하면서도 매일 운동

을 즐기고 술자리를 주도하는 '에비 사업가'였지 않을까. 그런데 경제학부를 졸업한 그가 왜 KAIST 산업공학 석사과정에 진학한 것일까?

"4학년 6월까지도 저는 경제학과 석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KAIST에는 석달만에 공부해서 들어간 쉐인 데..... 전 과거 어떨든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경제학과에 입학한 것은 그냥 '경제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지 뭐 특별한 게 있던 건 아니었죠. 학부 때 전 경영학과 과목을 40학점 이상 들었습니다. 실무에 가까운 공부를 하고 싶었고, 저처럼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 간 선배의 조언도 들었죠."

세계적인 컴퓨터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그의 컴퓨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얼굴을 붉힌다.

"제가요. 실은 해킹에 대해서는 광이예요. 공학박사로서의 컴퓨터 실력만 있을 뿐. 사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경제학부 출신들도 벤처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주) 인젠은 올해도 20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벤처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하니 관심있는 학우들은 문의해보길.

10년 선배인 임 사장에게 지금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물어보았다. 요즘 캠퍼스는 고시열풍에 싸여 있다는 기자의 말에 그는 "기사할 때 제발 고시같은 데 매달리지 말라고 꼭 써주세요"라고 부탁하며 운을 떼었다.

"젊은 여러분들이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일에 나섰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곳에서 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보수적인 곳에 인재가 많이 가거든요. 자신의 삶을 도전적으로 만들어봐요."

30대 초반의 미혼으로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다운 충고였다. 그는 '인터넷 뱅킹'이나 '주식 사이버 트레이딩', '전자상거래' 등의 예를 들면서 경제학적 마인드가 벤처 업계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인젠」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벤처타운에는 수십 개의 벤처기업들이 상주해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테헤란로 주변의 빌딩을 보니 말로만 들었던 벤처의 열풍을 느낄 수 있었다. 현대판 '골드러쉬'라는 비유가 생각난다. 모든 벤처사업가들이 임병동 사장처럼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격증'에 인생을 걸기 싫다는 사람,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싶다'는 '모험'적인 사람은 지금 테헤란로에 가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 취재 및 정리 : 경제학부 3학년 신호철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편집장)

